

민주당도 이재명도 혼돈에 빠졌다

① 6·1 D-6

박지현 '86용퇴론' 주장에 '자중지란'
계양을 '이재명 효과'도 미비 '전전긍긍'

국힘, 중원에 집결…'힘센 여당' 세울
충남서 교통·주거·은행 등 공약 봇물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더불어
민주당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에서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효과'도 오르지 않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기서 전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의 86 용퇴론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재동을 걸면서 자중지란에 빠지
는 형국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86(80년
대 학번·60년대생) 그룹 용퇴론'과 관련 '선
거를 앞두고 몇 명이 논의해서 내용을 내용
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앞으로 당의 선거와 혁
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의 논의 기구
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본
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비상경계 권한 발동을 언급한 것에도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며 "사안이 윤리심
판원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고, 윤리심판원에
징계절차를 넘긴 것도 비대위의 의결사항"이라
고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비대위원장이 쇄신
안 발표를 두고 "금시초문이고 지금도 따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당이 비상한 선거 체제에 돌입해 있지
않는가"라며 "사실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니

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후보
는 지역 내 표심이 심상치 않자 선거운동 전략
을 수정하고 지역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부터 다른 지역 유세 지원
을 자체하고 자신의 선거구인 계양을에 머물
며 지역 행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부터 수시로 지역 주민을 만나
는 일정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날도 지역 주민들과
만나면서 짐승을 공개하지 않았다. 자신의 유
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는 빙도도 낮아졌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주민들을 만날 때
일정을 공유하면 지지자와 유튜버 등이 현장
에 와서 대화 내용을 듣게 되면 불편하다는 의
견이 있다"며 "서로가 편한 상태에서 만나야
마음의 교류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
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유세방식 변화에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지방선거 최
대 승부처로 꼽히는 중원으로 집결했다.

최근 여야가 각종 여론조사 등을 기반으로
자체 분류한 판세를 보면 충북은 국민의힘이,
세종은 민주당이 각각 우세를 나타내고 있
으며, 충남·대전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국민의힘 충장선대위는 이날 오전 충남 천
안에 위치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
소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충청 선거전에 전폭
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대표)과 권성동·김
기현 공동상임위원장 등지도부가 전원 참석
해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기간의 지역 공
약 이행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충남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지역 발전 공약을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인천 섬으로 향하는 투표함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백령·대청·소청도에 보낼 투표함을 들고 여객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태경기자

GTX-C 천안 연장, 보령·조치원 내륙철도,
내포신도시 활성화 등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
는 한편 "총청권 지방은행이 없는 것을 심각
하게 생각한다"면서 지역은행 부활 추진도
약속했다.

아울러 "많은 것 공약하는 이유는 충청도
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확장으로 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
업들이 내놓은 480조원 규모 투자계획의 상

당 부분을 충청에서 유지해야 한다고도 언급
했다.

권 공동선대위원장도 "원내대표로서 힘센
도지사 후보인 김 후보를 적극 도와서 국회
내에서 행정부를 독려하고 설득하는 역할 다
하도록 하겠다"고 거듭했다.

그러면서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

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충남 출신
이라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의 충청 연고를
부각하는 전략을 폈다고 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충청
권 표심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
상되는 박완주 의원의 성비와 의혹 등을 거론
하며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공세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진보교육감 전성시대' 저물고 '교육정책 지형' 바뀌나



8년 동안 13~14곳서 진보교육감 승리
올해 곳곳서 보수후보 선전 접전 양상
코로나19로 '학력격차' 등 이슈 급부상

6·1 지방선거에서 8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 전
성시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1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
곳에서, 2018년에는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승리했다.

승리 이유로는 유권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금껏 결집력과 조직력이 강한 진보진영
후보들이 단일화를 바탕으로 선전했다.

이와 함께 '현직 프리미엄'도 크게 작용해 정

책 대결보다는 인지도를 앞세워 표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판세가 다소 달라져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은 격전지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모두 진보 성향의 현직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보수 성향 도
전자와 접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 지역의 경우 KBS부산·부산MBC가리
서치·안리시지에 의해 지난 16~17일 조사
한 결과 현직 김석준 후보 지지율이 21.2%, 하
윤수 후보 지지율이 15.4%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내에 있다.

이재정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도
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의 맞대결에서 임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에서 다소 앞선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 경우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사실상 단일화에 실패

한 보수 후보들이 각자 유세를 펼치고 있다.

41.5%, 김주홍 후보는 40.7%로 백종세다. 같
은 여론조사에서 경남의 경우도 3선에 도전
하는 박종훈 후보의 지지도가 39.4%, 김상원
후보가 37.5%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진보 성향 민병희 교육감이 3선 연임 제
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한 강원에서는 지지
도가 가장 높은 신경호·유대균 후보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재정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도
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의 맞대결에서 임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에서 다소 앞선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 경우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사실상 단일화에 실패

한 보수 후보들이 각자 유세를 펼치고 있다.

호남·충청지역은 진보성향 후보들이 안정
적인 지지세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정
책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여러 지역에서 보수성향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하며 진보 후보들에게 맞대
웅한 것이 변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또 혁신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
의 기대감이 예전만 못한데다, 코로나19 상
황까지 겹치면서 학생 간 학력 격차 이슈가
부각된 점은 현재 보수성향 후보들이 '학력
강화'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동력이 되
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4년 전과 같은 결
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지
배적"이라며 "보수 후보들이 17개 시·도 가
운데 몇 개 지역을 차지하느냐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강남~송파대로 잇는
현릉로 버스전용차로
2025년까지 뚫린다

강남~송파대로 잇는 현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내달 착공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강남대로 영동1교
부터 현릉로 북정역까지 9.7km 구간에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설치 공사는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
적으로 진행되며 중앙버스정류소는 모두
20개가 신설된다.

현릉로 청계산입구교차로~내곡IC, 3.2
km의 1구간은 내달 초 착공해 연말 개통한
다. 1구간 내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쇄하고 도로 중앙에는 양방향 중앙정류
소 8곳을 신설한다. 보행자 횡단보도 4개
도 설치된다. 강남대로와 현릉로를 연결하
는 2구간(영동1교~청계산입구교차로, 1.5
km)과 3구간(내곡IC~북정역교차로, 5.0
km)이 공사에 들어간다.

2구간 내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이 만나는 곳에는 가로변
에 들어져 있던 광역·간선·지선버스 정류소
를 통합해 도로 중앙에 정류소를 신설한다.
내년 2구간 사업이 완료되면 신사역사

서울시, 영동1교~북정역 9.7km 구간
3개구간 순차적으로 20개 노선 신설

차로 완공 시 신사역사거리~내곡IC
버스속도 27% ↑…환승센터등 연계

거리에서 내곡IC까지 버스 통행속도가 약
27%(시속 14.9km→19km) 빨라질 것으로 시
는 예상했다.

현릉로 전체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하면 강남대로와 송파대로 구간을 동
서 방향으로 연결하고 경부고속도로 등 주
요도 및 북정역 환승센터와도 연계된다.

특히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도로(내곡
IC), 용인서울고속도로(현릉IC)를 경유하
는 노선버스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
할 수 있게 돼 용인·화성·수원 등 경기 남
부 주요 도시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
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크게 향
상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공사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
해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하고,
차로 폭을 조정해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
는 차로 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6월 말 본격적인 공사 개시 시점에
는 차로 접용과 공사장 주변 교통체계 변경
등이 불가피해 교통 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인근 시민들은 대중교통이나 우회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단절됐
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결함으로써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
게 증진될 것"이라며 "공사가 완료될 때까
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더라도 시민 여러분
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2022 철원 고석정 꽃밭

시즌 봄 오픈 5.18 ~ 6.30
야간개장 6월 1일 부터 18:00 ~ 21:00

너와 나를 잊는 철원한탄강!
세월을 품은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면
이내 펼쳐지는 광활한 꽃밭의 향연, 봄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
꽃과 별이 가득한 고석정 꽃밭에서 당신과 함께
you are so beautiful to me

철원군 Cheorwon

“투표로 이어져야” “편향·부정확”…여론조사 ‘아전인수’ 해석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대한 아전인수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으나, 선거 결과에 대한 낙관은 절대금물”이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의 김태호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는 일정 부분 앞섰으나, 막상 결과는 0.7%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민주당은 지역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며 “지금 우리가 앞선 지역이라도 투표에서는 혼전 양상을 벌어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지층에선 부실 투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하루의 투표가 3일의 투표를 이길 수 없다.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승리의 죄기를 박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론조사가 투표로 이어져야 승리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총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충남도민이 윤 후보에게 51.08%의 지지를 보냈고 그래서 드디어 총청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는 원내대표가 될 수 있음에

도 이를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뿐만 아니라 충남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거기에는 김 후보를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권고와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음을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위시해 당 지도부 모두가 김태호 후보에 대한 우군이고 강력한 지원 세력”이라며 “김 후보가 당선되면 김 후보가 제시한 충남 발전시진이 실현되도록

윤석열 행정부와 국회가 열심히 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편향된 언론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국민의 선택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정권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구 구도가 우리 당에 유리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려운 여건을 딛고 국민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정권의 압승을 예견했던 2010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모두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도 국민과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않

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민주당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여야가 아전인수적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이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리

서치가 JTBC

의뢰로 22~

23일 인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

상 500명을

상대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 윤 후보가 42.2%, 이 후보가 44.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사람의 격차는 2.6%포인트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내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1%였다.

인천시장선거에서는 응답자의 41.2%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36.4%였다.

이어 정의당 이정미 후보 3.6%, 기본소득당 김현별 후보 0.1%가 뒤를 이었다.

경기 분당갑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실시
D-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경기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현황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홍해인기자

글로벌리서치가 JTBC의뢰로 같은 기간 성남 분당갑 주민 500명을 조사한 결과 안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58.0%, 민주당 김병관 후보는 28.4%로 조사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29.6%포인트로 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를 넘어섰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였다.

두 지역에 대한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인천 계양을 주민을 상대로 한 조사의 응답률은 16%, 분당갑은 11.8%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2~23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55.4%, 송 후보 33.1%를 얻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2.3%포인트였다.

오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송 후보를 앞섰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와 50대에서도 오 후보는 모두 50%를 얻어 각각 38.6%, 44.2%를 얻은 송 후보에 우위를 보였다.

강북 동쪽(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

성동·성북·종로) 지역에서 오 후보는 53.6%를 기록해 송 후보와 20%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보였고, 강북·서초(마포·서대문·용산·은평·종로·중구) 지역에서도 오 후보는 54.9%를 기록한 반면, 송 후보는 34.5%를 얻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 가입자 리스트 무작위 추출을 활용한 무선(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자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청년·신혼부부용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내년 도입된다

올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설계 후 내년 출시 추진

생애최초주택 가구에 LTV 80%로 완화…디딤돌 대출 확대도 검토

정부가 일자리와 주거, 소득, 자산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주거 시장리를 복원해주기 위해 최대 50년 만기 초기자금보증대출(모기지론) 도입을 추진한다.

25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만기 50년까지 늘려주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설계 및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복안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및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기존

상한을 기준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연내 우선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 등과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장래 소득 인정 기준’과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활성화하거나 소득 구간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장래 소득 인정 비율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소득 구간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확대하면 중간 구간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신설될 예정이다.

청년 원가 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우대금리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율러 청년을 포함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北, 바이든 ‘뒤통수’에 ICBM 도발…한미 압박에 ‘무력시위’

아닌 ‘뒤통수’에 대고 ICBM을 쏜 셈이다.

이는 자칫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고강도 도발을 했다간 미국의 즉각적인 전략자산 전개 등 북한이 맞다뜨릴 부담도 커지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

ICBM 카드로 위기감을 증폭시켜 존재감을 충분히 드러내고 실제 발사는 바이

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핵실험도 조만간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로, 전문가들은 내달 상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직후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전날 우리의 방공시스템 구역(KADIZ)에 진입한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 구도를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이날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함께 지난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 이행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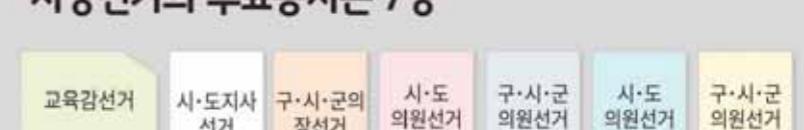
사전투표 안내

• 투표소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여론다운 선거
행복한 대선민주

민주평생교육원 선거위원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장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 추가 교부(7개 선거구)

※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니 후보자 이름 확인

유효표와 무효표 예시



관내선거인 | 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

④ 회송용봉투를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음

③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② 투표용지 7장과 회송용봉투 받음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

④ 투표지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음

③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

② 투표용지 7장 받음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



• 투표 시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활용하면 안 됩니다.

※ 투표지를 활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6.1

김은혜 '안전한 경기도' 생활밀착형 안전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25일 '골목 구석구석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구 밀집도와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최고 속도 하향 조정, 음주 이용자 및 안전모 미착용, 무단 주정자 강력 단속, 중·고등학생 대상 교통안전 조기 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스마트 보행로 구축 및 스쿨존 시각화·입체화 확대, 빅 데이터 기반 맞춤형 안전 솔루션, 학부모·교사 및 지역 주민 참여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공약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제

조·건설업 사고 빈발 사업장 중점 점검 및 맞춤형 대책 제공, 도지사 및 지자체장의 취약 현정 점검 및 유해·위험 요인 자체 신고제 운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제공 등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또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 취약 지역에 AI 탑재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가정용 스마트 방법 시스템 지원, 원스톱 범죄 비판자 보호 시스템 확립 등을 화물차 안전을 위해 화물차 전용 주차장 건설, 통신형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장착 활성화 및 수리·교체 지원 확대를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김동연 "경기 시내버스 요금 1450→1250원 서울수준 인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25일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1250원에서 2000원 오른 1450원이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시내버스 요금이 높은데,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서울시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하겠

다"며 "200원 인하를 추진하면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취임 즉시 코로나19로 운행 횟수가 줄어든 버스 운행을 완전 정상화하고, 현재 90개 노선인 심야버스 운행시간 연장과 신규 노선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를 준대중교통으로 활용해 버스·지하철과 택시 간 정액 환승할인제' 일정 수의 승객이 요청하면 자동으로 배차가 되는 '수요응답형 버스'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신상진 "공공개발 확대 2026년까지 4만세대 주택 공급"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개발을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4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신 후보는 "상용직 일자리의 큰 폭 증가에 도 불구하고 시 인구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지역 산업발전과 인구증가를 위해 좋은 상용일자리와 함께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 신규 취업 근로자 대다수는 주택공급 부족, 비싼 주택가격과 임대료 때문에 시내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후보는 시유지 개발을 통해 주

택 공급과 토지임대부 아파트 등 '반값아파트' 공급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종상향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율 통해 원가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임기 내 재개발·재건축, 공공택지구 개발, 일자리 연계형 주택단지 및 기숙사 공급을 통해 시 인구가 특례시 지정 인구수(100만 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보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기자 leeiy@jeonmae.co.kr

尹 대통령, 北미사일에 "한미 확장억제 실질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8시 38분까지 1시간 3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NSC를 주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행과 대비 태세를 보고 받은 뒤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 관련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호 1차장·신인호 2차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

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도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

통령의 본국 귀환 전에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

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

통령 귀국 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게 북한

에서 보내는 신호나 메시지라 생각한다"이라

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지침이 필요

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도발(12일) 때와 달리

NSC를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전날 한국방

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침입한 것과

관련,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중·러 삼각 양박

이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북한 도발

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로운

시나리오가 등장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론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도 별

도로 발표했다.

NSC 회의를 거쳐 정부의 공식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대통령 판단"이

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한반도와 국

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

며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ICBM 추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

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

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

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긴급 NSC 직접 주재…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상시 대비태세 유지"

정부성명 "ICBM 발사 추정,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도발' 강력 규탄"

코로나 백신 대북 지원 방침은 유지…대통령실 "문 열어놓고 기다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추가 대응과 관

련,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

국에 거의 도착했을텐데, 한미간 따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며 "북한 주민을 위

해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

고, 당연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국힘, 후반기 원구성 법사위원장 사수 총력전

"법사위 못내놓으면 국회의장 달라…추경 본회의 때 의장선출 안돼"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 없이는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뒷으로 선출한 후반기 국회의장단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개의가 예상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경 본회의가 열린 김에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 적지 않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추경과 의장 선출을 끊어서 하자는 이야기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라며 "우리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의장을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장을 나눠 맡는 것은 1당과 2당 간 견제와 균형을 통

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반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몰아

붙였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관련 과거 원구성 합의를 깨려고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제발 삼킬 수 있는 민름만 베어무시라.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다 가 탈난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입법폭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국회 일방 운영을 기획하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반기 합의는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했던 조약이 무효가 되는가. (민주당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궤변"이라고 쏟아붙였다.

서정의기자 seo@jeonmae.co.kr

이재명, 일정 전면 취소…지지율 하락에 궤도 수정하나

이재명 후보가 오전에 별도의 비공개 일정

을 소화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지지율 혼전 양상을 보이자 대책

마련을 위해 새 일정을 짰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원래 예정했던 행사와는 다른 성격의 일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안

다"며 "구체적

인 내용은 캠페인

프 측근들에

게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

은 것 같다"고

했다.

캠프 내부에서는 일부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바짝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바닥 민심은 이 후보에게 많이 기울어졌다고 자체 분석하고는 있지만, 선거전 초반 대비 격차가 좁혀진 것은 인정하고 있다.

계약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지역구로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후보는 대선 당시 인천 계약 관리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천연 온천수 '강천 힐링스파'로 힐링하러 오세요

전북 순창군 강천산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강천 힐링스파에 전국 단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순창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군은 매년 강천산을 찾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국내 최상의 음용수 및 온천수(39.6°C)를 활용한 수(water)치료 체험시설을 조성하게 됐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순창 수(water)체험센터 건립 사업은 전북도 농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과 관광이 융복합된 새로운 힐링 관광산업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순창 수(water)체험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난해 순창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를 통해 시설 명칭을 강천힐링스파로 확정하게 됐다.

2013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ICT 기반 힐링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5년 전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아 국비 45억원을 확보했다. 7년여의 사업기간을 거쳐 마침내 개장했다.

지난달 14일 개장한 '강천힐링스파'는 지난 10일까지 1만6398명이 다녀갔다.

연면적 2904m²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된 스파에는 1층에 치유누리실, 사우나실 및 아외노천탕 2층에 족욕실, 도반욕실, 미생물아토피치료실, 편백수 면실 및 스낵바 등이 갖춰져 있다.

또, 아외 온천정원에는 100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온천족욕장과 다양한 포토존과 휴식공간을 마련한 동굴형체험관이 조성됐다.

1층 치유누리실은 지하 1,200m에서 솟아나는 강천 온천수를 이용해 수중운동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구성했다. 편안하게 누운 자세로 허리, 허벅지, 발바닥을 효과적으로 마사지가 되도록 한 침대탕, 걸으면서 온열과 수압의 반복지극을 통해 허리와 발의 균력을 강화시키는 보행욕셋 그리고 바디마사지, 기포탕, 지압로 및 수중바이크 등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온천욕을 하면서 청정 순장을 느낄수 있는 노천탕 이용도 가능하다. (운영시간 09:00~18:00, 이용요금 대인기준 5,000원, 소요 시간 1회 30분)



〈아외온천탕〉

10,000원, 수영복, 모자 지참)

2층 족욕카페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디톡 족욕시설로 족욕을 통해 발의 혈관을 확장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노폐물 제거로 인해 체험 이후 밟아 가벼워짐을 느껴볼 수 있다. (이용시간 09:00~21:00, 이용요금 대인기준 5,000원, 소요시간 1회 40분)

근육 등의 긴장을 풀리고 숙면 등을 취하는 등 진정한 휴식을 체험 할 수 있다.

(이용시간 09:00~21:00, 이용요금 대인기준 5,000원, 소요시간 1회 40분)

2층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부모님과 함께 스파



〈도반욕실〉

〈족욕체험〉

가 뺄어져나와 음이온을 방출하고 있다.

온천수를 활용한 야외 족욕장은 100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강천산 산행후 온천족욕을 통해 산행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줄 시설이다. (이용시간 09:00~21:00, 이용요금 1,000원)

지하 791m에서 솟아나는 강천음용수는 2011년 2012년 한국의 좋은 물로 선정되면서 많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물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다만, 강천힐링스파가 조성되면서 온천정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한해 개방하고 있으며, 1인당 2통으로 제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따뜻한 온천수를 이용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강천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족욕과 도반욕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 오강식 기자 oks@jeonmae.co.kr



〈아외정원〉



〈동굴체험관〉



〈강천힐링스파전경〉

〈순창 제공〉

선제적 가뭄대책 추진…영농불편 해소

하상굴착 장비 임차료 지원 등

전북 순창군은 올해 예상되는 심각한 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가뭄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상황적인 가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상굴착이 필요한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긴급 배정하는 한편, 1월부터 영농철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용 공공관정 및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 수시 점검 및 시설물 31개소에 대해 수리를 완료했다.

또한, 소형관정설치 113개소, 영농불리지역 용수공급시설 설치 22개소에 대해 보조사업을 추진해 농업용 수확보에 민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올해 2회 추경에 소형관정 설치(주가 60개소) 보조사업 1억원, 공공용 암반관정 설치사업(5개소) 2억80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2억원, 구림 마을저수지 보강사업 7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 오강식 기자 oks@jeonmae.co.kr

순창 청소년 댄스팀 국제교류 추진

립업팀, 연말 한일 비대면 합동공연

전북 순창군이 관내 청소년 K-pop 댄스팀인 립업(LIP-UP)을 중심으로 일본 댄스팀과 국제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전라북도 공공외교 활성화 사업'에 순창군 생활문화동호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동호회 소속단체인 댄스팀 립업을 주축으로 사업을 전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립업은 일본 교류 댄스팀인 스마일링을 위한 자체적인 댄스영상 제작하여 K-pop 댄스의 기초와 스킬을 알리는 것은 물론 연말에는 한일 비대면 합동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립업 댄스팀의 리더인 김태희 학생(순창고 3학년)은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공연을 못했는데, 비대면이긴 하지만 국제교류를 통해 립업을 널리 알리고 함께 춤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설렌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양국 우호증진은 물론 지역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 오강식 기자 oks@jeonmae.co.kr

SINCE 1987
25 전국매일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2022
다함께 웃는 파주

다함께 행복합니다
다함께 즐겁습니다



PAJU
파주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서울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정환중)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강동구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정부 1차 방역지원금 수령자인 동시에 지난해 '경영위기기업종'으로 베트남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받은 수령자다.

서울시 시행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및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훈련 진행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신속한 재난 초기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해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도봉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합동으로 재난 현장 지휘역량 강화훈련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훈련은 은평구 소재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ICTO)에서 최근 진행했으며, 쌍문동 아파트 건축공사장 대형화재를 가상화해 약 2시간 동안 실시됐다.

훈련 중 도봉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은 화재사고에 따른 화재진압 및 수색구조 활동을, 도봉구 통합본부는 구조활동 자원 지원 및 수습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구는 연중 재난유형별 상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9월에는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치를 예정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민기술학교 운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대표 최근영)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수요 기반 기술을 교육하는 '2022 주민기술학교'를 운영한다.

주민기술학교 과정은 ▲아이돌봄서비스 기본과정 ▲클리닝서비스 기본과정 ▲주거지원 서비스 기본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동대문구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모든 교육은 실질적인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교육수료생 등을 구성으로 공익협동조합 형태의 지역관리기업 설립까지 이어지며 교육수료생들의 취·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주민기술학교 참여자는 5월 말까지 확정하고 교육은 6월부터 시작한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02-969-9936, www.eastse.net)로 문의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전자파차단 앞치마 전달식'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중빈) 송파산 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에서는 최근 사회적 기업 '청밀'과 저출산 문제해결 사회적 책임활동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전자파차단 앞치마 전달식'을 기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저출산이라는 시대적으로 당면한 사회문제를 공공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산모들에게 안전한 임신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건강한 출산으로 연결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밀'은 송파구 소재 사회적 기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영양플러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혁신사회적기업가상'을 수상한 국내 최대 사회적 기업으로 전자파·노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대사회 산모들에게 안전한 특수 전자파 차단 앞치마(부부 활용가능)를 지원한다.

이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에서는 임신가정 및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안전 출산 환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 운영

서울 양천구가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소중한 마음 건강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용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사업 참여에 동의한 주민이다. 단, 초진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이거나 약물 복용 중인자, 1년 이내 본 사업에 참여한 구민은 제외된다.

검진 및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관내 지정 정신의료기관(7개소)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검진 및 상담 후 보건소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에 한해 1인당 연 3회 최대 8만 원 까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양천구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02-2620-3907)로 문의하면 된다.

광진구,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구민 안전 최우선

9월 말까지 종합상황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서울 광진구(구청장 권한대행 엄의식)는 구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4개월 간 폭염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폭염주의보·경보 등 특보 발령 시 4개월 10명으로 이루어진 폭염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폭염대책 종합상황실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폭염 피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대재해법이 신설됨에 따라 폭염 시 야외 근로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상 열사병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아이스 조끼와 아이스 목걸이 등 냉방물품 지원을 검토 중이다. 또한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를 확보해 열사병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구는 고온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시스템인 룰링포그를 구의공원 27기, 이자산 생태공원 1기, 광진 숲나루 1기 등 4기 운영한다. 도심 열섬화를 해소하기 위해 5~10월까지 도로 물청소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과 태양광 기술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에 반응해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마 32곳과 스마트 그늘마의 기능은 살리고 설치면적을 대폭 줄인 마을버스 IoT 그늘쉼터를 마을버스정류장 14

곳에 설치한다.

이 뿐 아니라 휴대폰 보도 인근 또는 교통섬에 파라솔 모양의 고정형 그늘마 85개소를 포함하여 총 131개소 그늘마를 운영 중이다.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폐지수집 어르신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동별 담당 방문 간호사를 배치해 동복지플레너와 함께 건강관리를 해줄 계획이다.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노인일자리 대상자에게 컬스카프, 쿨타운 등 냉방물품을 지원하고, 폭염으로 냉방용품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는 가구별로 선풍기 1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화양동주민센터에서는 취약계층 250명에게 폭염예방물품으로 우양산을 배부할 계획이다.

경로당과 주민센터, 복지 시설 등 100개



자당사거리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마.

보령 시 3시간 연장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노원구, 은둔형 취약계층 발굴위한 '복지 메아리함' 설치

15곳 설치…누구나 손쉽게 본인 또는 이웃 위한 복지 지원 신청

서울 노원구는 무인 복지 서비스 신청 창구 '복지 메아리함'을 15곳에 설치하고 사방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교류 위축으로 은둔형 취약계층은 심각한 생계 곤란, 고독사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지원이 시급하지만 현재의 복지인력과 체계적으로는 밸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는 이런 은둔형 취약계층은 심각한 생계 곤란, 고독사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지원이 시급하지만 현재의 복지인력과 체계적으로는 밸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는 이런 은둔형 취약계층은 심각한 생계

범 운영에 나섰다.

메아리함은 하계 1동 중에서도 동주민센터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 우편함 옆 등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됐다.

본인 또는 이웃의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간단하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비치된 엽서에 간단한 인적 사항과 함께 생계비, 의료비, 공과금 체납, 기타 어려움 등 지원이 필요한 항목에 체크한 뒤 메아리함에 넣으면 우리동네 주무관이 주 1~2회 수거한다.

담당 공무원은 수거한 엽서를 확인해서 생활실태, 주거환경, 건강 및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하고 상담해 대상자에게 맞는 공공 및 민간의 복지지원을 연계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복지 메아리함은 사법 운영 후 이용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해 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 초부터 실시한 '복지 더 채움'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기준 미충족 주민들을 다시 살펴 13명을 구제했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서구 후보자들이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후보자들 공동공약 선포

'마곡지구 개발로 도약의 기틀 마련한 민주당이 책임지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서울 강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승현 강서구청장 후보를 비롯해 서울시의원·강서구의원 후보가 지난 24일 마곡지구 통합신청사 건축부지에서 공동 공약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한경애·강선우·진성준 국회의원

겠다는 뜻으로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강서구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로의 후퇴나, 미래로의 전진이나를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곡지구 개발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모두를 위한 강서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구로구, 1호선 구일역 내 스마트도서관 개관

온수역 남구로역에도 설치 예정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인구 밀집,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1호선 구일역 내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도서를 빌릴 수 있도록 지하철역 스마트도서관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자판기 형태의 무인자동화기기다.

구 관계자는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면 시간을 내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편리하

정이다.

구로통합도서관 '지혜의 등대' 회원증을 소지한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카드앱'을 통해 회원증을 등록해 두면 실물 회원증 없이 휴대폰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스마트도서관에서는 즉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며,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 구로통합도서관 '지혜의 등대' 홈페이지(lib.guro.go.kr)를 통해 구립도서관에 있는 책도 예약할 수 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송파구, 청년 취·창업 멘토링 '송풀' 멘티 제공

만 19~39세 송파 청년 누구나 무료 이용

서울 송파구가 청년들에게 취·창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송파 취·창업 멘토링 송풀(이하 '송풀')'에 참여할 멘티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송풀'과 '풀앤피'·'풀(Pool, Pull)' 등을 학 친 의미의 '송풀'은 송파청년네트워크 취·창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주도적 으로 기획한 취·창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

이다. 청년들의 니즈(needs)에 특화한 취·창업 관련 멘토링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첫 선을 보인 '송풀'을 통해 청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분야 멘토링을 진행하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평소 구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와 직접 만나 취·창업에 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멘토링을 기획했다.

송파구 거주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멘티가 되어 전문 멘토들을 만날 수 있다.

송풀 홈페이지(www.songpa-songpul.kr) 회원 가입 시 제공되는 포인트로 강좌를 수강하면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에서 대면 서비스로 진행되며, 기본 1:4 그룹 멘토링으로 진행된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양천구, 실버인지 전문가 과정 운영

중장년 여성 취업연계 직업교육
31일까지 교육생 15명 모집

서울 양천구가 관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실버인지 프로그램 전문가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6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6주

과정으로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흡폐 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담당자 이메일(seobuwomanup@naver.com)로 제출하거나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교육생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실버인지 프로그램 전문가 과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2-2620-4805) 또는 서부여성발전센터(☎02-2607-8791)로 문의하면 된다.

2분기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

서울 강남구가 6월 개강하는 '2022년 2분기 강남구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성인 학습자를 27일부터 내달 9일 까지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구는 전 연령대 성인을 위한 90여 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일원화하고 개포동 두 개의 평생학습센터에 개설했다. 구민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으로 강좌당 15명 내외(강좌별 상이), 교육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6주간이다.

일원평생학습센터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는 영화제작 마스터', '뮤직 미술심리 상담소',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과정', '드라마 대본 작성클래스', '펫시티 양성과정' 등 트렌드를 반영한 평생학습 강좌들이 개설된다.

개포평생학습센터에는 '마이 페이보릿 디저트', '내 아이 발달력 만렙으로 키우기', '인물화 캐리커처' 등 요리·인문교양·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또 원데이 쿠킹 클래스를 별도로 운영해 '펫 푸드 만들기', '수제 전통주 빚기', '워킹맘·흔밥인을 위한 레시피' 등을 주제로 한 수업이 열린다.

박정복기자 parkch@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오늘 정원지원센터 개관

서울 중구는 일상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중구 정원지원센터'를 26일 개관한다.

중구 정원지원센터는 정원 조성과 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배우고 체험하는 주민 교육 공간으로, 중부시민 인근 유후공간에 조성된다. 센터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시민정원사회'에서 맡는다.

면적 82.54㎡ 규모의 교육실 내벽에는 수직정원을 설치해, 주민들이 녹색 환경 속에서 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수직정원은 공기 정화뿐 아니라 여름철 실내 온도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개관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우선 정원과 가드닝에 대한 주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주민 맞춤형 정원교육 프로그램 '정원과 친해지자'가 26일부터 열린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사회인이 들려주는 진로·강연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경수)가 청소년의 직업 탐색의 장을 마련하는 '사회인이 들려주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내달 18일은 '나는 매일 지구를 읽는다'란 주제로 이은지 지구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강연을 진행한다. 25일에는 서울대병원 김태훈 연구원이 'AI개발자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진로 강연이 이어진다. 두 강연자는 한국창의과학재단의 과학커뮤니케이터 활동 중이다.

강연은 강북구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거주 중인 초·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내달 15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회복 프로젝트 운영

서울 성북구보건소가 코로나19 감염 후 유증에 시달리는 구민을 위해 '코로나 회복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보건소는 단계적 후유증 극복 및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9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북구보건소 '운동을 더하다' 카카오톡 채널 및 성북구청과 보건소 운동 블로그(https://blog.naver.com/sbxexercise), 인스 타그램 및 SNS를 통해 전문적인 운동 방법 및 바른 식생활을 위한 영양 정보를 안내한다.

운동 관련 정보로는 코로나 감염 후 약해진 호흡, 심폐체력, 근력 등의 회복 방법을 단계적으로 10회에 걸쳐 제공하며, 영양과 관련해서는 임암 살리기, 면역력 높이기, 건강 생활을 지원 등의 정보를 마찬 가지로 10회에 걸쳐 알려준다.

또한 안내사항을 실천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간 중 4회 무작위 추첨을 진행, 총 2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마천1동 통장단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

서울 송파구는 마천1동을 통해 지역실정에 밝은 통장단을 주민 리더이자 이웃살피미로 양성하기 위해 '통장단 복지도우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중이다. 25일 밝혔다.

마천1동은 고독사 등 복지취약계층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좀처럼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6명의 통장단이 이웃살피미로 활동하며 돌봄취약가구 230 가구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마천1동 통장단의 활동을 돋기 위해 지난 1 월 '통장단 복지도우미 역할교류'를 시작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주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노인복지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위기기구 발굴 우수 사례 공유를 진행했으며, 4월에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교육과 함께 납한산성 등반 등을 실시했다.

동작구, 사도부지 774필지 소유자 정보 현행화 추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원활한 진행 기대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과거 구 횡성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60년 이상 소유권 및 주소 변동 없이 방치된 사도부지 774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은 저작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유자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소유자를 찾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방치된 사도부지의 소유자를 찾기

못해 건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도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주소 미변경, 소유권 미상속 상태로 지속 방치돼 사도를 포함한 건축 등 민간사업을 추진할 때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사업주진에 난항을 겪었다.

구는 관내 사도부지 774필지(6만 9253.3㎡)에 대해 유관 부서와 정보를 공유·협업해 상속 및 주소변경 등을 현행화함으로써 건축 활성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서정의기자 seo@jeonmae.co.kr



동작구는 소유권과 주소 변동 없이 60년 이상 방치된 사도부지의 소유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 (동작구 제공)

성동구, 행안부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2개 사업 선정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물·건축인허가 데이터 구축…국비 6억 7000만원 확보

서울 성동구(구청장 권현관 대행 유효화)는 행정안전부 주관한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에서 2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인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 중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물' 및 '건축 인허가 종료 기록물' 데이터 구축사업에 동시에 선정, 올해 11월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물에 관한 데이터 구축 사업은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만든 시설물에 대한 총괄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각 통학로에 따른 인근 교통안전 시설물 현장 실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데이터를 4,000건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인허가 중요 기록물 데이터 구축 사업은 건축인허가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 오래된 수기장부를 디지털화하거나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다. 구에 저장된 15만면의 수기자료를 전산화해 1만건 이상의 중요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구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 국비 2억 원을 받아 기초 자자체 최초로

상가 입대료 비데이터를 구축하여 올해 초 대시민 공개서비스를 실시했다.

구는 이번 데이터 구축 사업이 국비 6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이다. 26명의 청년 인턴과 함께 현장 조사 및 데이터 구축 작업을 면밀히 수행, 관련 자료들은 오는 11월까지 데이터 구축 후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에 담재하여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구축되는 자료들은 고도화된 교통 정책 추진과 건축 관련 민원 수행시 처리기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승출)

서울시선관위, 롯데월드타워 외벽 투표참여 홍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롯데물산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외벽 조명을 활용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내 최고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BRIGHT

FACADE)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캐치프레이즈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및 '투표로 밝히는 온 동네'를 주제로 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홍보 메시지를 표출해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울시선관위 홍보과 관계자는 "많은 유

권자들께서 서울의 밤을 밝히는 아름다운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동네를 밝혀줄 소중한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해 달라"고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박정복기자 parkch@jeonmae.co.kr

종로구, 자하문로·돈화문로 보행환경 개선 완료

자하문로, 역사·문화 반영한 친환경보도 조성

서울 종로구는 자하문로와 돈화문로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각각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내 최고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BRIGHT

는 가능한 돌, 모래 등을 사용해 친환경보도를 조성했다.

특히 자하문로는 서촌으로 진입하는 가장 큰 길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광화문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번에 보행환경을 개선한 돌길을 걸으며 고풍스러운 멋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돈화문로 11길 보행환경 개선 공사'

는 FACADE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캐치프레이즈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및 '투표로 밝히는 온 동네'를 주제로 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홍보 메시지를 표출해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번에는 돈화문로뿐 아니라 서촌길, 피맛길, 익선동 한옥거리, 송해로, 국악로, 귀금속거리 등 익선동을 걸어나온 종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옥색빛 보성석과 재활용이 가

임형천기자 limhc@jeonmae.co.kr

금천구 "주민돌보미 통통희망나래단 신청하세요"

서울 금천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 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 주민을 돌보는 '통통희망나래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통희망나래단은 최일선 복지 현장에 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지역복지 리더를 말한다.

모집인원은 동별로 가산동 1명, 독산동 2명, 시흥1동 3명이다.

신청 자격은 ▲주민돌보미 통통희망나래단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위기기구 발급 ▲금천구에 만 3년 이상 연속 거주자 ▲지역사회에 밝고 자원봉사 및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면 된다. 최근 3년 이내

자원봉사 경력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근무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가점률을 부여한다.

다만 이전 통통희망나래단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임기 6년을 모두 차운 자는 활동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 '고시·고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자격요건에 대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내달 24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통통희망나래단으로 선발된 주민은 면접점수 및 예비자 및 결원자 등을 고려해

홍성수기자 HongSS@jeonmae.co.kr

관악구,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 대응체계 본격 가동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반 15개 부서 구성

서울 관악구는 본격적인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름철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응체계를 대상으로 냉방물품인 선풍기, 물 토시, 네선풍기 등을 지원한다.

노인돌보미, 제가관리사, 통장,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세난도우미가 독거어르신, 만성 질환자 등에 대해 방방간호 및 안부전화 등으로 밀착형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는 '스마트풀러그' 안부화면을 확장하고 폭염일수 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구는 지난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 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취약시설 안전관리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폭염취약시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건설공사장, 여름철 가스공급시설, 석유관제업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실시한다.

구는 ▲폭염종합대책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취약계층 집중관리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열설현상 완화 ▲아이 근로자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및 유통점검 ▲폭염 예방 홍보 총7개의 주민 전략을 바탕으로 대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강서구,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 위한 '집증 방역'

민관협력 통한 효율적 방제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이 찾는 균린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7대와 해충 유인 살충기 3대도 운영한다.

지자체인력 양성사업 수료식

인천 연수구는 최근 (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취업연계형 지자체인력 양성사업'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연수구가 (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과 쿠광 인천 16·17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2기에 걸쳐 운영됐으며,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자체인력의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교육 참여자 30명 중 29명(97%)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쿠광 체육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사전교육 및 체육설명회가 포함된 커리큘럼과 감사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피드백을 통해 참여자들의 교육과정 이해도와 목표 의식을 높여 아름다워졌다.

수료자들은 5월 하순에 지자체운전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고, 이후 6월 중순까지 지자체 실기면접 실시 결과에 따라 쿠광 물류센터에 취업 연계될 예정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반딧불 가족 문화축제 개최

인천 서구 가족센터가 최근 운영법인 (사)한국경제사회연구소와 함께 정기호수공원 멀티프로지에서 남녀노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2022 반딧불 가족 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가족문화가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족 여가 문화축제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가족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반딧불 L행사 밤길장, 가족의 도전, 다문화 체험 빌리지, 각종 만들기 체험 등 체험장, 가족센터 퀴즈 게임 등 디제로운 이벤트가 열려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가족문화를 체험하고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이다.

심정은 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서구 가족문화를 선도하는 대표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역민과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 기자 mchs@jeonmae.co.kr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인천 계양구는 하거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광고를 양성하는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 변경 또는 자진 철거토록 경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육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자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 간판, 벽면 이용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경우 면적이 5㎡ 이상, 한 벽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건물의 4층 이상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성화 대상이다.

자진 신고는 계양구청 공영기별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 후 방문 신고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 맹창수 기자 mchs@jeonmae.co.kr

백령~인천항로 코리아프린세스호 투입

인천항해양수산청은 백령~인천항로를 운행해 오던 여객선 '웅진훼미리' 호(452t)를 대신해 성능이 향상된 '코리아프린세스' 호(534t)로 대체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청에 따르면 대체 운행하는 여객선은 규모와 선속 등이 향상돼 해당 항로의 운행 시간이 종전의 5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이상 단축 운영된다.

대체 여객선 코리아프린세스호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운임 요금 신고 및 행정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운행예정이며, 운행 시간·요금 등 세부사항은 여객선 고려하고 허용으로 문의해 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상교통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적인 여객선 운행으로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속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항로의 운행 선박은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여객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지원받고 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Green 스마일 웅진 환경프로그램 실시

인천 웅진군지원봉사센터는 영흥하마읍봉사단을 중심으로 해군영흥도전체비 입구 부근에 조성된 화단 보수와 주변을 정소하는 'Green 스마일 웅진'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군영흥도전체비와 영흥도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꽃과 함께 2019년 웅진군지원봉사단에서 설치한 영흥도 마을 고유 이름 안내 표지판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영흥도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정보선 센터장은 "어느 때보다 녹색환경 조성, 기후 변화 대응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봉사활동이 주목되고 있는 지금 해변 환경정화, 식목 활동, 친환경 캠페인 등 'Green 스마일 웅진'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자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경제청, 산통부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

IFEZ, 커넥티드카 거점 시동

한국자동차妍 주관 사업비 148억 투입
2024년까지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차량 통신 국산화로 신산업 성장 기대

미래 자동차인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서비스와 관련한 핵심기술 구축사업이 국가 공모에 선정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가 이 사업의 우리나라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근 선정됐다고 25

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무선통신의 성능 검증 시스템 구축, 무선통신과 연결된 전장품(전기)을 통한 차량의 인증평가를 위한 실제 자동차·부품 단위 기반 구축, 인증 평가와 기술개발·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기술 지원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시스템 구축에는 국비와 시비 등 모두 148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4년까지 커넥티드 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의 인증 평가에 필요한 시범·장비 구축 등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청라 인천로봇밸리에 연면적 410㎡ ~3층 규모로 올해 기본·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운영이 목표인 커넥티드 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안에 구축된다.

성용원 경제청 차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5G 서비스 상용화, 카쉐어링(차량공유제)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커넥티드 카의 확산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에 선정된 것은 IFEZ가 커넥티드카 신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는 것이 확인됐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청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IFEZ가 글로벌 트렌드인 커넥티드 카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차량 통신과 관련한 국산화 기술 선점으로 우리나라 신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안영규 행정부시장, 중구 우회고가 진입램프교 현장 점검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중구 우회고가시거리 인근 우회고가 진입램프교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자살위기 시민 동네 병·의원서 지킨다

인천시 '생명시령병원' 31개 확대
자살고위험군 도울기관 연계 역할

갖추게 된다.

지난해 말 인천시자살예방센터와 한국생명증진협회재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시각 전에 정신건강의학과(61.9%)와 병·의원(25.0%)을 방문했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 '2021년 범사자 통계'에 의하면 시·자살·망 원인 중 정신질환(40.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생명시령병원과 협력해 보건

의료인력의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도울기관 연계, 자살예방 정보제공, 생명증진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증진 홍보 협력 수행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생명시령병원은 시·소재 의료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며, 인천시자살예방센터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정경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자살위기 도움체계 마련을 위해 생명시령병원을 통네 병·의원부터 정신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 자살위기자 발굴체계를 구축, 자살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탭엔젤파트너스, 인천 스타트업 육성 기관 협업 '팁스' 최종 선정

민간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기술창업으로 인천 투자생태계가 도약을 맞이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혁신모펀드 조성사업 이후, 서울에서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앤솔러레이터(주)탭엔젤파트너스와 주(주)코스프링이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포로그램, 팁스(TIPS) 운영사 공모에 각각 입선향과 예비형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참여기관들은 인천 스타트업 육성에 이미 최전진한 핵심 기관들로, 이번 팁스 컨소시엄 협업을 통해 인천의 특화한 투자기관과 성장지원으로, 지역 투자생태계의 실질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큰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탭스는 성공벤처인, 성공벤처 등이 주도하는 민간 투자사(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 등)를 통해 유망 기술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의 기술개발을 연계해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팁스 운영사가 벤처기업에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경제청·뉴욕주립대 FIT '페션 페스타' 연다

송도빛축제공원·부평지하상가 예정

인천을 패션·디자인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패션쇼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대학인 한국뉴욕주립대 FIT와 함께 '2022 인천 패션 페스타 - THE RUNWAY'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용원 경제청 차장은 "인천 패션 페스타 행사는 기존 일부 계정만을 위한 전통적인 패션쇼와는 달리 공개된 장소에서 무료로 진행해 누구나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유월에 부평단오축제 개최…내달 12일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원이 내달 12일 부평 캠퍼스 B구역에서 2022년 단오 행사는 '유월에 부평 단오 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유월에 부평 단오 축제'는 81년 만에 되찾은 캠퍼스에서 온 가족들이 세 시풍속을 체험하는 축제이며, 행사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26호인 부평두레마는 공연과 전통상식 시연을 시작으로 가수 코요네, 뮤ージ컬의 그려나, 전자악기, 타악기, 브리스톨 드레드 등이 초청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교육청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것"

고교 교감 대상 학교폭력 예방·시안처리 역량강화 연수 운영

인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효율적 시안처리를 위한 고등학교 교감 대상 '손에 잡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아쓰는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하다"며 "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같이 가치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교육과정 연계, 어울림 프로

그램을 적용해 학급당 연간 8차시 이상 운영하며,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예방활동, 관계중심 생활교育을 활성화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아쓰는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하다"며 "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 민간기업 기술 활용 지원순환 생태계 조성

SK텔레콤·SK지오센트릭 등 협약

인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효율적 시안처리를 위한 고등학교 교감 대상 '손에 잡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청 접견실에서 SK텔레콤과 SK지오센트릭, 에코ICO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프라를 활용한 정보통신망구(ICT) 기반 지원순환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식에는 시 박수연 지원순환에너지본부장이 참석하고 SK텔레콤 여자부사장, SK지오센트릭 이종우 부사장, 에코ICO 박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시 박수연 지원순환에너지본부장이 참석하고 SK텔레콤 여자부사장, SK지오센트릭 이종우 부사장, 에코ICO 박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시 박수연 지원순환에너지본부장이 참석하고 SK텔레콤 여자부사장, SK지오센트릭 이종우 부사장, 에코ICO 박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박수연 지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일상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에 참여 기관 모두 공감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슬루션을 기반으로, 투명페트병 무인 수거기기의 선별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지원순환 생태계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슬루션을 기반으로, 투명페트병 무인 수거기기의 선별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지원순환 생태계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신청

경기 성남시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2년 하계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참여 희망자 25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대학생은 오는 7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시정·구정·복지관 등에 배치돼 주 5일 하루 3시간씩 행정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연수 기간에 '알리고 싶은 우리부서(성남시)' 과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시는 연수생들에게 생활임금 시급 1만1080원을 적용한 하루 3만240원의 연수 수당을 지급한다. 이일영기자 leey@jeonmae.co.kr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 실시

경기교육청이 유·초·중·고·특수 등 총 27교를 대상으로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등교가 정상화되고 교육의 일상 회복에 따라 교육영역 전체를 집중 점검해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학생안전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 점검단이 직접 대상교에 방문해 점검하는 주요 분야는 학교 방역관리와 급식위생, 교육시설 안전, 학교시설 안전 분야로 오는 7월 상순까지 50일 동안 교육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설세훈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오래 지속되면서 전체 학생의 학교생활이 낮설 수도 있다"며 "학교활동 곳곳을 집중 점검해 발견되는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고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 프로그램 운영

경기 동두천시립도서관은 오는 12월까지 시 노인지회와 연계해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은 시립도서관에서 그림책 수업을 받은 어르신이 매주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등을 찾아 다양한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세대 간 정서를 교감하는 프로그램이다.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년의 역사를 가진 관내 대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참여 어르신과 활동 기관 선정은 시 노인지회에서 담당하고 시립도서관은 어르신 대상 그림책 역량 강화 수업을 운영한다.

올해 대상 기관은 어린이집 10곳, 병설 유치원 1곳, 장애인주간기센터 및 노인보호센터 각 1곳으로 총 13곳이다.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제36회 안양단오제 28일 개최

경기 안양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제36회 안양단오제'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평촌 종양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단오제는 지난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밀접 접촉을 필요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했으며 대신 공연을 들려 시민들에게 불가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단오날 맥주에서 수호신에게 올렸던 공동체 제의를 재현하기 위해 특별 부스에서 '단오굿'을 펼칠 예정이다.

김용근 원장은 "사전 투표도 하고 평촌 종양공원에서 신나는 공연과 단오 세시풍속 체험으로 건강한 여름을 맞이하는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고시

강원 춘천시는 최근 강동대장간, 봉의산 반석령 시암각, 용산리 회협문주태실을 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했다.

'춘천시 향토문화유산'은 국가·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지역의 유·무형 유산이나 자료다. 앞으로 시는 신규 지정된 춘천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강동대장간은 현재 전통 농기구(낫, 허미) 및 칼 등 생활용품을 제작·판매하는 곳으로 춘천의 농기구를 전통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장장이다.

봉의산 반석령 시암각은 중종 26년에 지은 반석령의 시문을 영조 1년에 번수한 봉의산 일부에 새긴 것이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지자체 추천 안심관광지 17곳 선정

충북에서 선정된 17곳이 '2022년도 지자체 추천 안심관광지'에 선정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안심관광지는 지난해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 추천을 기반으로 평가한 관광지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치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위생·안전 관리를 우수한 관광지이다.

충북에서 선정된 17곳의 안심관광지는 대통령의 별장 청주(청남대), 드모아힐영지와 이경관평생소 충주(충경립사 청원), 사문화원 평생학습장을 경험할 수 있는 청천(국제천 치유의 숲), 익원지자연체험관, 청천온수풀출렁거리, 청풍호 반 케이블카, 퍼스트리스, 수리산 대자연 앙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보은(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 대청호안의 맛진 경관을 따라 조성된 육전(한수호수길) 등이다.

청주/ 양철기자 ckyang5@jeonmae.co.kr

금산군, 수질관리사업 매진

충남 금산군은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4단계(2021년~2030년) 사업에 온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돼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위한 하천부하량을 산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및 하천 수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낙개발 방지, 친환경 개발 유도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관내 금강수계 단위유역은 총 6개로 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4단계 돌입
환경부 설정 목표 준수 총력 대응
공공하수처리장·하수관거 등 정비

경부장관이 설정한 목표로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BOD)은 1.0~41mg/L, 총인(T-P)은 0.016~0.134mg/L로 설정됐다.

군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환

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개선, 미을하수도 신설,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 저감 등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충남도 기본계획에 따라 실행력 있고 방향성이 명확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전진을 기울이고자"고 밝혔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는 전날 청나에서 학부모 지원사업 컨설팅을 실시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공>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부모 지원사업 컨설팅 눈길

실무 교육 위주 운영

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는 전날 청나에서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교(15교)와 학부모 학습공동체 지원교(9

교) 담당교사 및 학부모 임원을 대상으로 학부모 지원사업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학부모 지원사업의 원활

미성 학부모지원전문가를 초빙해 올바른 지원금 집행 안내, 운영계획서 컨설팅 등 실무 교육 위주로 운영됐다.

정원만 교육장은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학부모 참여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산/ 박석하기자 psh@jeonmae.co.kr

강원교육청, 찾아가는 예술 한마당 확대

강원교육청은 내달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한마당'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1개 전문 공연단체가 도내 유·초·중·고·특 120개 학교를 찾아가며 123회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한마당'은 지난해에 100개 학교에서 다양한 학교급의 요구와 높은 학생 호응으로 유치원까지 확대해 올해 120개 학교

21개 공연단체 학교 방문 공연
올해 유치원 포함 120개교 운영

로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는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고 학년별 수준에 맞춰 연극(음악극, 인형극, 뮤지컬), 음악(국악, 클래식, 크로스오버, 재즈), 미술(드로잉서커스, 샌드아트),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비보잉), 퍼포먼스(미임, 미술, 베벌쇼) 등 21개 전문 공연단체가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하나진 문화체육과장은 "올해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공연 관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공연 감상과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h@jeonmae.co.kr

보령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최종점검

보고회 개최…사업 운영·관리체계 등 검토
투자계획 작성…이달말 행안부 제출 예정

최종 검토가 이뤄졌다.

시는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작성하고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키로 했다.

제출된 투자계획서는 행정안전부 전문평가단과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 및 보완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배분 금액이 확정된다.

고효율 사업 권역내에서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과 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투자계획서를 제출해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이상현 원주국토관리청장, 도로교통 안전관리 강화

대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지역 주민과 지역을 찾는 도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한 점은 없는지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월을 소재 영월2터널(L=970m, 2004년 12월 개통) 통합관리센터를 찾아

관리원과 운영 상황 및 터널내 교통사고 등

현무/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예산군, 충남혁신도시 이전 적극 건의

충남 예산군이 충남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쏟아붙이는 등 새 정부 정책에 밝혀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군은 필수유치기관으로 선정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 연구개발 분야 공공기관 2개소를 찾아 충남혁신도시 홍보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알아보고 군으로의 이전을 적극 건의했다.

군은 그동안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

관 이전을 위해 IT기반 구상해 대응해왔으며 부군수 등이 공공기관을 방문해 세일즈 행정을 펼치고 충남혁신도시의 우수한 정주환경과 사례선전 혁신 창고로 홍보해 왔다.

예산/ 이준택기자 chtlee@jeonmae.co.kr

6·1 지방선거 D-6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생활밀착형 안전 공약 발표

“골목 구석구석 안전한 경기도 만들겠다”



대체 제공, 도지사 및 자체장의 취약 현정 점검 및 유해·위험 요인 자체 신고제 운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제공 등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여성 1인 가구 범위 예방 방안도 공개했다. 여성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 취약 지역에 AI렌즈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가정용 스마트 방법 시스템 지원, 원스톱 범죄 비판자 보호 시스템 확립 등을 공약했다.

그로써 환경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을 전용 주차장 건설, 통신형 디자인 운행기록계 장착 활성화 및 수리·교체 지원 확대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와 주민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 후보는 "도민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골목 구석구석 안심하고 살피고 믿을 수 있는 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동해시청년연합회,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 지지 선언

“청년 소통·공정한 미래 약속 깊은 감동”



이지만 그 속에서도 도전하는 지역 청년들을 보며 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 이교환기자 leekh@jeonmae.co.kr

군포도시공사,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경북 예천군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5월 25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간신히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증액된 4500여만 원을 편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관내 주민들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인구도 별도 기입 절차나 기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국내 어디서든 담보내용에 해당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상해사망·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증상·상해사망·후유장해·농기계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가스·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예천/ 장세천기자 jangsch@jeonmae.co.kr

복지사각지대 밸굴 활성화 간담회 실시

경북 영천시 입고면 행정복지센터는 25일 입고면 명예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밸굴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밸굴하고 주기적 안부 확인을 수행하는 능동적 위기 밸굴 체계의 주체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정동훈 입고면장은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밸굴,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가족 해체, 저자녀화의 딜절에 따른 위기 밸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여기에는 저자녀화 무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천/ 윤석중기자 yun-sj22@jeonmae.co.kr

광산하이테크와 110억 규모 투자협약

경남 함안군은 광산하이테크와 110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25일 군수실에서 이병철 광안군수·권현대행, 광산하이테크 하해용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투자기업인 광산하이테크는 벌금수수료·운송비 일원의 기준 평균장을 인수해 110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및 증설과 약 4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협의했다.

광산하이테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창립했으며 수소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부품업·제조업을 영위하는업체다.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의 증가로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협소한 장소를 탈피해 현 투자지인 폐공장을 매수해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함안/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천온사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 선정

전남 구례군은 '천온사 상상의길 및 소나무 숲길'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2년도 안심관광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문제로 30년간 걸음을 끊어왔으나 지역관광사업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입장료를 폐지하고 2020년 12월에 '천온사 상상의길'을 조성했다.

이 길은 일주문에서 시작해 천온사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과 천온온수지를 한 바퀴 도는 3.3km의 순환형 트레일로 있다.

이광동 군수 권현대행은 "자리산과 삼진강의 청정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새로운 안심관광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구례/ 양관식기자 yang-ka@jeonmae.co.kr

산림치유 프로그램 11월까지 운영

전북 남원시는 문봉읍에 위치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과 유아숲 체험원에서 산림치유 전문인 산림치유지도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10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곳 체험휴양시설은 지난 2014년 21만545㎡ 면적에 67억 원 규모로 조성된 솔나음길, 음이온길, 조릿대길, 내나무터, 전방대 데크, 비래움 계곡, 명상실 등 자리산의 풍부한 자연환경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산림치유관 산부의 위원, 경관, 헛빛, 소리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과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해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

광주시는 신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경기도, 한국기술원, 한국디스플레이연구 조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지능정보원 등 6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마이크로LED디스플레이 산업화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뉴딜,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라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사이니지·산업 인프라 및 기반구축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 등은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고 차세대 40억원을 투입해 지역 광융 합기업의 마이크로LED 사이니지산업 진입을 위한 '협력 거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150~700㎡급 LED가 적용되는 디지털사이니지, 투명사이니지 등 마이크로LED 사이니지 양산화를 위한 '장비구축 및 공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성호기자

홍콩 유통업체 탑월사와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안 논의

시인마스켓 상수 산지 방문 지속적 수출확대 상호 협력

경북도가 중화권 농식품 수출 확대에 팔을 걷었다.

도는 전날 홍콩소재 유통업체인 캐럿 리 탑월사 대표와 면담을 갖고 지역 농식품의 수출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탑월사는 전 세계 농식품을 취급하는 홍콩의 대형유통업체로서 연간 700만불 이상의 한국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경북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을 설치·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00만불 이상의 지역 농식품을 수입·판매

할 예정이다.

도는 방문한 캐럿 리 대표는 K푸드 얼짱이 힘입어 한국식품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게 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앞으로도 포도, 땅콩, 마늘, 생강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촉으로 경북 농식품 수출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면담 후 대한민국 시인마스켓 수출

의 55%를 차지하는 상주의 주요 산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코로나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상설판매장을 통한 홍보방법 등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해외 식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형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dy@jeonmae.co.kr

경북도, 중화권 농식품 수출 확대 팔 걷었다

홍콩 유통업체 탑월사와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안 논의

시인마스켓 상수 산지 방문 지속적 수출확대 상호 협력

경북도가 중화권 농식품 수출 확대에 팔을 걷었다.

도는 전날 홍콩소재 유통업체인 캐럿 리 탑월사 대표와 면담을 갖고 지역 농식품의 수출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탑월사는 전 세계 농식품을 취급하는 홍콩의 대형유통업체로서 연간 700만불 이상의 한국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경북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을 설치·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00만불 이상의 지역 농식품을 수입·판매

할 예정이다.

도는 방문한 캐럿 리 대표는 K푸드 얼짱이 힘입어 한국식품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게 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앞으로도 포도, 땅콩, 마늘, 생강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촉으로 경북 농식품 수출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면담 후 대한민국 시인마스켓 수출

의 55%를 차지하는 상주의 주요 산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코로나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상설판매장을 통한 홍보방법 등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해외 식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형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dy@jeonmae.co.kr



현대상호증공업이 김형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LNG운반선 4척의 동시 명명식을 개최했다. <현대상호증공업 제공>

현대삼호重, 초대형 LNG운반선 4척 동시 명명식

3조4000억 상당 LNG운반선 15척 건조

현대삼호증공업이 회사 창립 이래 최대 프로젝트의 첫 동시 명명식을 개최했다.

현대삼호증공업은 전날 노르웨이 크루센 사가 발주한 17만 4000CBM급 LNG운반선 4척의 동시 명명식을 회사 20년 역사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선박 4척은 선주 즉 인사에 의해 '산주터프 크루센', '우엘바 크루

센', '페플 클루센', '엑스트레이디우드 크루센'으로 각각 명명됐다. 선박의 이름은 선주사와 사업적 유대가 높은 스웨덴의 여러 지명을 사용했다.

이번에 명명식을 치른 선박 4척은 영국에 본사를 둔 오데마피지언 SHFL사에 용선될 예정이다. 멤브레인 타입으로 길이 290미터, 폭 46.4미터, 깊이 26.3미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용선사의 요청에 따라 18노트 속도에 최적화된 선형으로 설계됐다.

선박 밑으로 공기를 분사해 마찰 저항을 줄임으로써 메인엔진의 연료 소모를 6% 줄일 수 있는 공기류활성화시스템과 디젤발전기 기동 없이 메인엔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축발전기를 갖추고 있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최신 선형이다.

현대삼호증공업은 크루센로부터 총 15척, 28척 볼 상당의 동형 LNG운반선을 수주하고 있다. 현재 화물을 적용하면 3조 4천억 원에 유통되며 회사 창립 이래 최대 프로젝트다. 이들 선박은 명명식 후 내달부터 시작해 2025년 12월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의령군, 1000억 규모 공모 사업비 확보 도전

역대 최대…농촌협약 공모사업·인구소멸 대응기금 확보 집중

경남 의령군이 역대 최대인 10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 확보에 도전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총 40건, 총 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공모사업을 준비해 군 개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군은 농촌협약 공모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체체계가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협약지역에 기초생활 서비스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제도이다.

군은 '사람이 돌아오는 의령'이라는 비전으로 수립된 농촌 공기전략 및 생활편 활성화 계획을 내세워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전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인구 소멸 대응기금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이 주도돼 인구전략을 수립하면 국가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상향방식으로 시군당 최대 240억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군은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먼저 소멸위기 개정예정지단을 설치하고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에 주력해 왔으며 이달 중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산림문화·자신인 신포숲 주변의 목재체험장 조성, 공기정보기반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산림소득사업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관 청부 정부 국정과제와 도정 주요 현안을 연계한 대규모 신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나서는 계획이다.

이미회 권현대행은 "지금은 군이 추진하는 현인들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를 관기름을 즐기면서 시장에 대한 시기"라며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역점사업을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전 부서 협업과 짐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g@jeonmae.co.kr

진주시, 옛 영남백화점 철거 부지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

총사업비 249억 투입 내년 준공

장남김은행·작은도서관 등 조성

경남 진주시가 지난 30년간 도심 속 흔들로 방치됐던 옛 영남백화점의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명에 이르는 소유주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민간 자체로는 정비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됐다.

옛 영남백화점 처리 문제는 2020년 진주시의 '진주시 디모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을 주진주시하고 25일 밝혔다.

인사당에 위치한 옛 영남백화점은 1991년 백화점으로 개점했으나 1992년 경영화로 영업이 중단된 이후 30년간 도심 속 흔들로 방치됐다.

시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선정되면서 국도비 60억 원을 확보해 매입절차 등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홍성군, 건축행정 신뢰 높인다

주거환경 다양한 개선사업 추진
각종 인허가 민원 4.5일로 단축

충남 홍성군은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건축 행정의 신뢰를 높여 지역 발전에 앞장선다고 25일 밝혔다.

군에서 처리한 건축 민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523건에 달했으며 총 4만6716가구에 주택 보급률은 122.7%지만 농촌인구로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빙집과 질 낮은 주거환경은 지역의 새로운 건축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날로 증가하는 건축 민원에 대응해 신속 정확한 처리로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거환경을 위한 다양한 개선사업을 펼쳐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우선 빙집 철거를 지원하는 빙집정

비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지원 사업, 농협 자금 저리율자인 주택 개량사업,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해 폐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고령자 및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등 주거복지 지원역할과 더불어 여성 전용 안전·안심 대학가 및 마을 조성, 신 한옥형 이동 숲 체험관 설치와 홍성천월계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도 추진중이다.

또 허가건축과는 접수되는 각종 건축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도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원자재 폭등과 인플레이션 인한 건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민원인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 기반을 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더(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를 적극 활용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총괄 공공건축가와 건축위원회, 육외광고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을 활발히 운영해 공공건축분야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지원 사업과 함께 인허가 처리에 있어 합리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군민의 권리 보호와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며 “불가한 민원의 경우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민원인이 용인할 수 있도록 친절한 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정선군, 신동읍 예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강원 정선군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였던 신동읍 예미1지구 일원 259필지, 5만 589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완료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과 지적도) 작성도 마쳤다. 이후 등기축탁 및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정산 등의 후속 절차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안명일 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해소가 기

대된다”며 “군민 불편해소와 선진행정서비스

스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choi@jeonmae.co.kr

군포시자립생활센터와 업무협약

경기 군포도시공사가 군포시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사의 교통·체육·레저시설 등 시설들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교통의약자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사업, 편의시설 확보 및 확대를 위한 협정체계화를 공동으로 ‘리빙밸’ 운영,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운영체계 도입공사사업은 “특히 월체어유모차 이용 고객, 어르신 등 모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풍물봉’”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공사가

‘모두의 풍물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 이재희기자 goodnews@jeonmae.co.kr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 모집

경기 가평군은 내달 7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하반기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용자 인원은 시각장애인미사용서비스 9명, 무리아이집단지원서비스와 이동장난발달지원서비스

스마트·면밀수도집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미사용서비스는 신규 대기자 수

가 많아 각 읍·면·면의 신규 대기자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 받을 계획이다. 모집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충족해야 할 기관별 기준중소업체 120% 이하

부터 140% 이하로 상이하며 선정된 이용자는 소득 기준에 맞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기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고리데이미을 캠프 축제’ 28일에

경원 횡성군 청일면 봉령리에 위치한 고라데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오는 28일 캠프축제를 개최한다.

고리데이미들은 밭교산과 병무산, 수리봉에

둘러싸인 아름한 산골 마을로 화전·움막체험, 산마니체험 등 다양한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대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캠프 사이트를 늘리는 등 캠프 여행지로도 인기를 모아왔다.

(사) 횡성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고리데이 미을 캠프페스티벌’로 주요 행사로는 프리미엄 운영과 함께 목공체험, 화전·움막 LED 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홍성/ 안종빈기자 iyahn@jeonmae.co.kr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

강원 동해시창업보육센터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동해시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239개 창업보육기관과 강원도 주관 도내 16개 창업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창업보육센터 경영 평가’에서 각각 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동해시창업보육센터는 지역의 초기 창업자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주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인력 창출, 정부지원사업 선정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아 창업지원 전문성 및 창업 인프라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44번 국도 활성화를 위해 인제군과 흥천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빌리티 종합서비스(세차, 정비 등), 두 바퀴 휠링 카페(라이더 특화 휴게공간), e-모빌리티 대여소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e-모빌리티 대여사업은 앞으로 신남리 일원에 속속 준공될 소양호 명품생태화원·방어체험마을·신남 슛속 정원 등을 편리

한 e모빌리티를 이용해 관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도 44호선 활성화가 더욱 중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사업은 마을 전체를 휴식, 먹거리, 충전 등 휴게소처럼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인제 신남리 ‘마을휴게소’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계획으로 더욱 그 관심이 주목된다.

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은 “광역지원계정 기금 확보에 이어 오는 8월 행정연전부가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기금도 최대한 확보해 44번 국도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출 방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제/ 이종빈기자 ejb@jeonmae.co.kr

인제군,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사업비 55억 확보

강원 인제군은 지난달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흥천군과 함께 국도 44호선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사업비 55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44번 국도 활성화를 위해 인제군과 흥천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빌리티 종합서비스(세차, 정비 등), 두 바퀴 휠링 카페(라이더 특화 휴게공간), e-모빌리티 대여소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e-모빌리티 대여사업은 앞으로 신남리 일원에 속속 준공될 소양호 명품생태화원·방어체험마을·신남 슛속 정원 등을 편리

한 e모빌리티를 이용해 관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도 44호선 활성화가 더욱 중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사업은 마을 전체를 휴식, 먹거리, 충전 등 휴게소처럼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인제 신남리 ‘마을휴게소’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계획으로 더욱 그 관심이 주목된다.

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은 “광역지원계정 기금 확보에 이어 오는 8월 행정연전부가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기금도 최대한 확보해 44번 국도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출 방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제/ 이종빈기자 ejb@jeonmae.co.kr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 견본주택 그랜드 오픈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한양(이하 한양)**이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동에 오피스텔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한양은 전국에 약 20만호를 공급하며 주택사업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진행한 ‘수자인’ 브랜드 리뉴얼과 최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도입 등 삼성성을 강화해 주택사업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수자인’은 브랜드 리뉴얼 효과를 톡톡히 보며 분양시장에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부산 강서구 ‘에코텔타시티 한양수자인’, ‘파천 한양수자인’ 등 아파트 분양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오피스텔에서도 ‘수자인’의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앞선 ‘수자인’ 브랜드 단지의 흥행을 이어갈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8-69번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다. 지하 3층~지상 19층, 2개동, 전용 55㎡A,B,C,D 4개 타입, 169실 규모로 조성되며, 타입별 분양 호실은 55㎡A 51실, 55㎡B 50실, 55㎡C 34실, 55㎡D 34실이다.

이 단지는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상품성도 우수하다. 그/그녀형 주방과 소형 드레스룸, 펜트리 공간 등 이파트 주문설계로 상품성을 강화했고 벌트인 냉장·냉동고와 세탁기, 건조기, 시스템에어컨(3개소), 3구 하이브리드 루프 등

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해 세세한 부분까지 완성도를 높였다. 이 외에 100% 자주식 주차장과 지하세대창고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는 안양·평촌 생활권으로 주거여건 우수 전용 55㎡ 4개 타입 총 169실 구성



부지지를 복합체육센터와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행정업무복합타운’도 계획돼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는 아파트 수준의 공간설계와 인근의 다양한 개발 계획 등으로 실거주 및 미래가치가 높은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수요자들 사이에서 안양 내 ‘수자인’ 브랜드 타운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양 일정은 오는 31일 청약 접수를 받고 내달 7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후 내달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3-12 2층에 마련되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GTX-C 노선(금정역)과 월곶·교고선, 동탄·인덕원선 등 의 교통호재를 비롯해 옛 농립축산검역본부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열기구 타고 한눈에 보세요”

내달 11~12일 한산초교 운동장서
이색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 흥보



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대에 운영되며 풍속 5m/s 이상 또는 우천 시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o@jeonmae.co.kr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월 13만원으로 인상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다

경기 군포시 관내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이달부터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우수와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이 인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군포시의회 의원 밸의로 보훈명

예수당 인상규정을 담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25일 공포됐으며, 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5월부터 종전에 월 10만원이던 지급액을 13만원으로 인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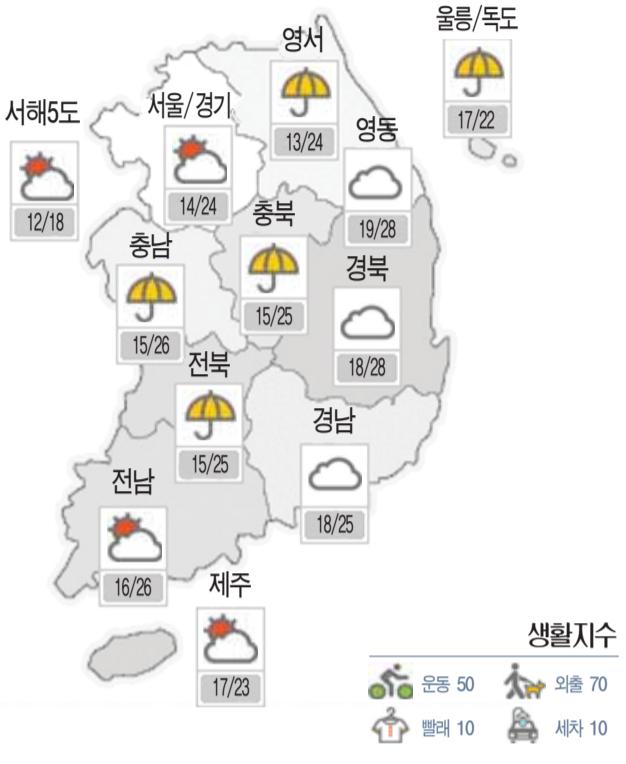
보훈명예수당 월 13만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대상자는 군포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전몰장성 군경, 순우 군경 및 공무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군포/ 이재희기자 goodnews@jeonmae.co.kr

오늘의 날씨

전국 곳곳 빙방울

2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새벽에 경기 동부·남부, 강원도, 충청권, 전북 북부, 경북 서부 내륙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 전북 남부와 전남 북부, 경남 서부 내륙도 빙방울이 펼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늦은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9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산시, 화재안전 성능보강 최대 2600만원 지원

충남 서산시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에 나선다.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층 이상 규모의 기업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이다. 단, 피난용자이용시설(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이나 연면적 1000㎡ 미만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시는 화재안전설비 보강비용으로 총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공사액의 3분의 2를 지원하며 그 외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결정 시 보강계획서는 서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을 통해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 시 기간 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msg@jeonmae.co.kr

강원 고성군, 소하천 유수 소통 지장 물 정비 추진

강원 고성군은 2억3600만 원을 들여 소하천 유수 소통 지장 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업내용에는 오호천, 배봉천, 운봉천, 순포천으로 주요사업은 하상 내 3만2500㎡의 자생수목 및 수조, 퇴적토 사정비 등이다. 또 부족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징후호우 시 범람 등의 재해를 예방하며 특히 사업추진 시 수조 뿐만 아니라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의 자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원활한 유수소통 여건 확보로 징후호우 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토사유출 방지 등 재해예방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을 우기 전 조속히 완료, 재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삼척시, 쓰레기 배출시간 계도 홍보

강원 삼척시가 폐적인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배출시간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쓰레기 수거 시간과 주 배출 시간이 상이해 낮 시간에 배출된 쓰레기가 의뢰 세탁 수거까지 짧은 시간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악취 등의 문제로 발생했다. 이번 홍보는 주민들이 쓰레기 적과 배출 시간(일몰 후)을 준수하도록 해 낮 시간 쓰레기 적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통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생활쓰레기 배출시간과 방법을 지키는 것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삼척/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용인시, 신봉3근린공원 새명칭 '수지중앙공원' 선정

경기 용인시는 신봉3근린공원의 새 명칭으로 '수지중앙공원'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지구 신봉동 주민 최성현씨가 제언한 '수지중앙공원'은 수지구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용인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용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기미집행 공원으로서의 상징성과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담은 이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3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명칭을 공모했다.

212건의 명성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2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4월 1일~22일)를 진행, '수지중앙공원(841표)', '수지푸른숲공원(710표)', '서수지중앙공원(340표)', '수지아름다운공원(208표)', '서수지푸른숲공원(217표)' 등 5위의 공모작을 선정했다.

시는 이를 5건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3차 심사)를 진행해 대표성, 적합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 수지중앙공원을 최종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생활 공간 가까운 곳에서 공원을 찾아 쉴 수 있는 공원 인프리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유원수기자 youys@jeonmae.co.kr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 범죄예방 '톡톡'

실시간 범인 검거실적 증가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앞장

경기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가 실시간 관제를 통해 각종 현행범 검거해 범죄예방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문 CCTV 관제요원인 A씨는 지난 3월 23시경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을 이용해 모험전통마당 내에 있는 문화재 양호공심등사당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침입하여 용의자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앞장섰다.

또 지난 22일 관제요원 B씨는 한적한

산길에 설치된 방범CCTV로 학교폭력

현장을 발견 즉시 신고해 학생의 신병을 확보하고 기해 학생들을 불잡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이에 김포경찰서장은 지난 24일 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에 감사함을 격려했다.

한편 시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는 총 6023대의 CCTV를 경찰관과 관제요원 24명이 365일·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충남 보령시는 모기 등 해충을 매개로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하절기 특별방역 활동을 펼친다. <보령시 제공>

보령시, 해충 매개 감염병 차단 특별방역

충남 보령시는 모기 등 해충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하절기 특별방역 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 활동은 모기가 일정한 장소에서만 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해 서식 지역에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살포해 유충이 성충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특별방역 활동 이후에도 11월까지 취약지 일제 방역 소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기를 무상 대여하고 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금산군, 코로나19 재택환자 한약처방 '호응'

충남 금산군은 전국 보건소 최초로 추진한 코로나19 재택환자 대상 맞춤형 한약처방이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시작돼 1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확진자의 증상 호전과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군보건소 한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탕약·한약 처방 및 치료용 한약 배송 등을 진행했다.

모니터링에 따르면 답변자 중 89%가

주민 100명 탕약 등 배송 89% 건강회복 도움 응답

계속 추진해야 한다. 재택치료기간 한정이 아닌 후유증 증상 완화 시에도 치료를 해줬으면 한다 등 건의 사항이 제시됐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재택환자 맞춤형 한약처방이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주민 건강 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양양군,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8월 말까지 운영

임천보 등 8개소 집중관리

강원 양양군이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근무자 등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 소방서, 경찰서, 해경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으로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에 여름철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계곡과 하천, 강 등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 31개소의 안전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물놀이 기간 전 전수작업을 계획이다.

특히 양양대교 하단과 임천보, 상평보, 영덕리 애랑장 등 그동안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수심이 깊고 금류·외류(소용돌이)로 사고 위험이 높은 8개소에 대해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섰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24일 대웅제약 본사에서 '응급상황 그림으로 보는 문진표' 도입을 위해 대웅제약, 피치미켓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소방본부 제공>

세종소방, 그림 문진표 도입 신속 응급처치

대웅제약·피치미켓과 협약

세종소방본부는 전날 대웅제약 본사에서 '응급상황 그림으로 보는 문진표' 도입을 위해 대웅제약, 피치미켓과 3자간 업무협약을 계약했다.

이는 언어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외국인 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원이 그림으로 환자상태를 평가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종소방본부는 구급장에서 필요 한 그림 문진표를 제작해 응급처치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언어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외국인 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원이 그림으로 환자상태를 평가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협약은 대웅제약과 피치미켓에서 공동개발한 '장애인 의사소통 환자' 그림 상화를 토대로 구급현장



평택시, 교통약자 운전원 비대면 음주측정

휴대용장비·앱 활용 측정 기능

시 감독의 아래움, 공용 축정기 사용에 따른 감염 위험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비대면 음주측정 시스템은 휴대용 음주 축정 장비와 모니터 앱을 활용해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시 교통약자(장애인) 클릭시 운전원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으나 24시간 차량 운행에 따른 상

평택/ 김월복기자 kimwb@jeonmae.co.kr

속초시, 선거철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단속

발견시 철거·과태료 부과

강원 속초시가 내달 14일까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철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선거운동 기간에 편승해 설치하는 공공목적 및 상업목적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발견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진정비를 유도하며 음란·퇴폐성 광고물(전단지, 명함)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하고 불법광고의 전화번호를 이 용정지 표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시거리 아파트 등 분양 목적으로 불법 대량 설치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속초/ 윤태훈기자 younth@jeonmae.co.kr

“‘응급상황시 10분내 병원 도착’ 합의 위법 아냐”



화제의 판결

인천의 삼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사선사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0분 내 병원에 도착하도록 한 업무합의서 내용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고 평했다.

인천지법 민사1부는 인천 모 병원 병원 측과 상대로 낸 업무합의서 무효 소송에서 원고 폐소 판결을 했고 25일 밤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업무합의서 내용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10분 내로 도착해야 한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

“단순 도착시간 정한 합의 규정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A씨는 월 26~40차례 정도 근무시간 외 응급검사를 했는데 응급검사가 30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손현규기자

경기북부지역 부생연료유 등 위험물 기획수사

경기북부소방·석유관리원 합동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와 부생연료유 관제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기획 수사는 부생연료유 무하가 저작과 불법 가조 시설을 균열, 정상적인 생산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최근 실시한 긴급회 내용을 바탕으로 합동 수사본을 구성, 오는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불시 방문 단속을 추진한다.

다. 단속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소재 부생연료 유 관제업체와 부생연료유 사용업체(세탁공장) 등이다.

수사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석유 및 석유제제연료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시설 무단 설치, 위험물 불법 유통 여부, 저장시설의 허가인·전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경마한 위험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저장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입건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j@jeonmae.co.kr

논산시, 코로나19 방역·위생안전 多 잡았다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

충남 논산시의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안전 관리가 돋보였다.

시는 최근 민·관 협력을 통한 출출한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민·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방역 수칙 지도 매뉴얼을 수립해 철저한 관리에 나선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서 처한 자영업자 등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관내 3000여개에 달하는 위생업소를 특별·집중·일반관리시설로 세분화해 위

험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순위로 주 1회 이상 방역수칙 이행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금지 등의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방역수칙 만족 지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실제 현장을 잘 아는 자영업자가 지도원으로서 특별방역 수칙 개도 등에 큰 효과를 거뒀다. 또 논산 육군훈련소 집단 확진자 발생 및 전국 유통업소 확진자 사례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 방역 조치를 통해 시기적절하게 대응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매뉴얼을 즉각 수정·반영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했다. 논산/ 박석기자 psh@jeonmae.co.kr

제주도, 일제 식민잔재 없앤다

실태조사후 청산계획 수립 착수
도교육청은 작년부터 운동 전개

제주지역에 일제 식민잔재 청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5일 도는 ‘제주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의 친일잔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식민잔재 현황을 조사, 청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용역을 시행키로 했다.

용역을 통해 건축물과 식재수목, 기타 상징물 등 공공기관의 식민잔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향후 청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올해 연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제주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활동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차 계획에서는 공공기관·친일 잔재 조사·연구를 통해 친일문화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 5년마다 일제 식민잔재 청산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축재본부/ 양동의기자



넘어진 크레인

25일 오전 8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 동면내부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대형 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크레인과 주변 시설물이 크게 파손됐다. 또 정리 과정에서 주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사진은 넘어진 크레인.

연합뉴스/ 손현규기자

휴대전화 넘기고 급전 ‘내구제 대출’ 조심

빌린 돈 수십 배 요금 부과도
경찰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

휴대전화를 넘기고 급전을 빌리는 ‘내구제 대출’이 판다고 있다.

25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는 새로운 변증 불법사금용 중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조직은 먼저 전단이나 SNS 등에 ‘급전 필요한 분’, ‘안전한 소액 급전 지원’ 등

광고 글로 피해자를 모집한다.

돈이 필요한 피해자가 연락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1대당 돈은 융통해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인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몇 달 뒤 통신 요금과 소액 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원 상당의 요금이 청구된다. 자신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으면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빚으로 돌아온다.

또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져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악용된다.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가 속칭 대포폰이

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기통신 사업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피해자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내구제 대출’이 금전대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업법 적용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흘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 범죄여서 적극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장악기자 seo@jeonmae.co.kr

사건·사고

중국인 강도질 다음날 피해자에 벌각 겸거

50대 남성이 카페에서 강도질을 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우연히 벌각돼 불집렸다.

25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5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강도 혐의로 불집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께 부천시 심곡동 한 카페에서 접주인 5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흥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24일 오전 9시 40분께 심곡동에 있는 카페를 찾았다가 이곳을 우연히 방문한 B씨에게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한 뒤 자신이 만나려고 이 카페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용돈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도로에 앉은 남성, 차에 치여 숨져

도로 위에 앉아있던 남성을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 한 암주 운전자가 경찰에 불집렸다.

25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50)를 불집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파주시 탄현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 앉아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핀 뒤 도망갔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장소 주변을 수색해 A씨 차량을 발견하고 회사 속소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B씨가 도로 위에 앉아있게 된 경위도 조사 중이다.

부천/ 임정일기자 imc@jeonmae.co.kr

다른 남자 만났다고 의심해 여친 목 졸라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해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50대가 경찰에 불집렸다.

2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8)를 불집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시흥 장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B씨(49)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B씨 목을 줄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불집렸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후보자토론회
신청하고
투표하세요’**

서울특별시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YouTube |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 시간

서울특별시장선거 (초청)

| 2022.5.26.(목) 오후 11:00 | MBC KBS SBS

서울특별시장선거 (초청 외)

| 2022.5.24.(화) 오후 03:00 | MBC

비례대표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초청)

| 2022.5.25.(수) 오후 04:00 | SBS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초청)

| 2022.5.23.(월) 오전 10:00 | KBS

열린 토론 바른 선택

동정



목요간부 회의

고효열 충남 보령시장 권한대행은 26일 시청 종회의실에서 열리는 목요간부 회의에 참석.



노인회장배 한궁대회

심원섭 강원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진행하는 '제9회 노인회장배 한궁대회'에 참석.



청소년 진로 직업 박람회

이종규 충남 금산군수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1시 금산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군 청소년 진로 직업 박람회에 참석.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는 26일 오후 2시에 주시홀에서 열리는 상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에 참석.



두루미라이온스클럽 이·취임식

신인철 강원 철원군수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5시 한라버스 광장에서 열리는 철원 두루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인구정책 위원회 회의

김병렬 강원 정선군수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군 인구정책 위원회 회의에 참석.



인구정책 위원회 회의

조현국 경원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26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2년 제2회 군 인구정책 위원회 회의에 참석.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공헌 감사장

전남 목포농협은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검거에 공헌해 목포경찰서로부터 감사장(사진)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농협관계자에 따르면 '점의 35코노'에서 특정계좌에 대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감지함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돼 목포경찰서와 긴밀한 공조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현장에서 겸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최윤순 자율방범대장에 유통봉사상 전달

강원도율원봉사센터는 25일 정선군청 부군수실에서 4월의 유통봉사로 선정된 최윤순 정선군장을 자율방범대장에게 유통봉사상을 전달(사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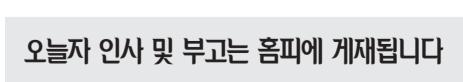
정선/ 최재혁기자 jchoi@jeonmae.co.kr



지역인재양성 장학금 500만원 기탁

천혜자 재부산 의령향우는 최근 지역인재양성 장학금 500만 원을 군청회관에 기탁(사진)했다. 천 향우는 "지역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밝혔다.

의령/ 최규균기자 chpag@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람과 사람

안양시 행정직 공무원, 전남도체육대회 복싱 銅

"복싱하며 공직생활 자신감 얻어"

이주찬 주무관, 64kg급 준결승서 메달



경기 안양시의 한 공무원이 전남도체육대회에 복싱 선수로 출전해 동메달을 따 동료 공무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민

안

간

전

(30·남) 주무관은 지난 20일부터 나흘 간 치러진 제61회 전남도체육대회 복싱 64kg급 준결승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2010년 전남도체육대회 54kg급에 서 동메달을 거머쥔 이래 개인 통산 도민체전 4번째 메달을 획득했다.

이 주무관은 "업무에 쓰겨 일주일에 하루도 훈련하지 못하고 했다. 틈틈이 운동

하며 대회를 준비했다. 이번 대회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게 됐고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복

싱 덕분에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을 가지

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주무관은 업무에 대한 능력도 넘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규제개혁과 제안에 대한 열정도 깊어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자체우수제안 우수상, 2021년 경기도 규제 합리화 유공상과 안양시 적극행정·규제혁신 유공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선호 구청장은 "이주찬 주무관은 지역의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 '민문한답(만안구의 문제는 현장에 담이 있다)'을 담당하며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로 이를 알리고 있으며 자기계발에 힘쓰는 모습이 여러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포토뉴스



정홍근-농협군지부,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전남 정홍근 농산과 직원들과 농협중앙회 정홍군지부 직원 25명이 영농철을 맞아 전날 농촌 일손돕기를 위해 구슬땀을 틔웠다고 25일 밝혔다.

정홍/ 이명호기자 LMH@jeonmae.co.kr



희망법자, 광주전남본부 '희망법자' 봉사활동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는 전날 순천의료원 광장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법자' 식사 제공 봉사를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희망법자, 광주전남본부 '희망법자' 봉사활동

경남 허동교육지원청은 최근 관내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허동교육행정발전연구회원과 함께 봉사를 펼쳤으며 지역사회에 은정을 나타냈다고 25일 밝혔다.

허동/ 임홍섭기자 imhs@jeonmae.co.kr



보령시 청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물품 전달

충남 보령시 청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저소득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신 선물과 콩나물시루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해양환경정화 활동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전날 송악읍 안성포구 일대에서 해양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고성군

고성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짐승 점검

경북 고성군은 최근 경찰과 협동 디스的秘密을 펼쳤다.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청양군, 저수지 농업용수 확보 현황 점검

충남 청양군이 다가오는 모내기 철을 대비해 최근 저수지 농업용수 확보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평택시 안중출장소, 어린이집 보육환경 소통 간담회

경기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최근 어린이집 보육환경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특별기고



최수천

북부지방소방본부장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차는 22조에 달한다. 하지만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는 수많은 임업인들의 소득은 농업 및 임업 종사자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작년 11월 30일 공포된 '임업·산림 공의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의직불법)'이 다가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 있다. 임업·산림공의직접지불제도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의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사업과 유통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산림공의직접지불제는 임산물생산사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에게 대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산물생산사업 직접지불금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장기·저수익성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육류업 공의직불금'으로 구성돼 '농어업경영 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계법)'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북부지방소방본부장에서는 암암대장 농업경영체(이하 암암경체) 등록 시행 이후 3년간 약 2000여명의 임업인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되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확장하는 임업인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들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등록된 임업인이 임산물생산업 및 유통업 직접지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행준수 이행사항이 미지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림의 다양한 공의기능과 경제적 가능의 가치는 우리세대에 매우 큰 자산이며 향후 그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여기에는 임업인들이 기여하는 역할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북부지방소방본부장에서는 임업인들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고·환경·기후에 대한 보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업·산림공의직불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혁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 사진, 만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원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전화 1588-5762 / 팩스 031-758-4360 / 홈페이지 jeonmae.co.kr

외부 링크의 칭찬, 기고, 평론과는 본지의 관점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적거리는 관산을 위한 제언

기고



김주호

전남 장흥군 관산읍장

다. 작가는 고령이 아님에도 천관산이 좋아서 30년 동안 그 이름과 풍광을 사진으로 담고 계시고, 요즘에는 기암정에 천관산의 이름다움을 그리고 계시다. 나아가 개인으로서 작품 활동을 넘어서 지역민들에게 예술 감상의 기회를 넓혀주셨다. 작년 4월에는 자백 정원에서 '천관산 자락 벽을 품는 기와장 그림전시회'를 개최해 천관산에 대한 예술적 확대조성하고, 그림을 보수와 공원 명칭 부여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명승 천관산의 둘레길 조성이다. 요즘에는 산의 정상을 오르기 보다는 산의 둘레를 걸어보는 장거리 도보길이 대세다. 어린이와 신체적 약자를 배려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탐방 할 수 있도록 천관산도 코스별로 둘레길 조성이 필요하다. 걸으면서 천관산의 풍경한 모습을 감상 할 수 있고, 가까이서는 계곡과 사시사원 푸른 숲길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천관산은 관산읍과 대덕읍을 경계에 두고 있다. 관산 쪽에는 장천재, 천관사, 천관산 동백숲, 천관산자연휴양림, 수동물을 염길이 있고, 대덕 쪽에서는 천관산문화공원, 탑산사 등이 있다. 이처럼 둘레길 조성을 위한 관광자원은 충분하다. 이제는 흘러 있는 점들을 둘레길이라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 더욱 풍성하게 천관산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청남진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이다. 청남진 해안도로는 양양면 용구리를부터 용산·관산을 거쳐 화진항까지 46.3km로, 영광의 백수해안도로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지난 2020년 3월 장흥군에서는 청남진 해안도로를 총 10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각 구간별로 혁신히 마을을 출하는 '청남진 해안도로 관광자원화사업' 예비계획 구상 용역을 한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소관부서를 정하고 재원 확보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강한 주민의식을 가진 분들과 함께 장흥 남부의 거점도시인 관산이 장흥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행정에서도 '북적거리는 관산'이라는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과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적거리는 관산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지친신문 안수원 회장님이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제2회 천관사 축제'를 주최해 주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없이 인내해 주시면서 그곳의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읍민 한 분 한 분 애爰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전시회 등을 통해 북

삼성생명

건강자산을 키우다 튼튼한 톤튼한하게!

삼성생명 건강자산이
튼튼하게 벌어드립니다

삼성생명
건강자산



튼튼한 건강

바른 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관리

튼튼한 보장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 준비

탄탄한 노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노후자산